

가계빚, 1540조 '사상 최대'...증가율은 14년만에 최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154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으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권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대출이 줄어들면서 6년 만에 증가액이 가장 적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4년 만에 4%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540조원으로 전년대비 333000억원(0.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에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액수다.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진 것은 2014년 1분기(0.3%)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분기(1468조2000억원) 대비로는 모두 71조8000억원(4.9%) 늘었다. 2014년 4분기(66조2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증가 규모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2004년 4분기(4.7%)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가계빚이 급증하던 지난 2015년~17년 연평균 증가율이 10%대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에 확연히 제동이 걸린 셈이다.

가계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451조9000억원으로

1분기 가계신용 잔액 1540조, 전년동기대비 4.9% 증가
은행권 기타대출·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감소로 전환
전기비 증가액 6년 만에 최소...5년 만에 증가율 0%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규제 영향 등 추이 봐야”

전년대비 5조2000억원(0.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22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액이 19조4000억원 축소된 것이다. 전년동기대비로도 64조7000억원 늘어 1년 전 증가액(101조1000억원)보다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집담대출 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지표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옥죄 영향이 크다. 한은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정책 지속과 주택매매거래 위축,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21만8000호에서 올 1분기 14만8000호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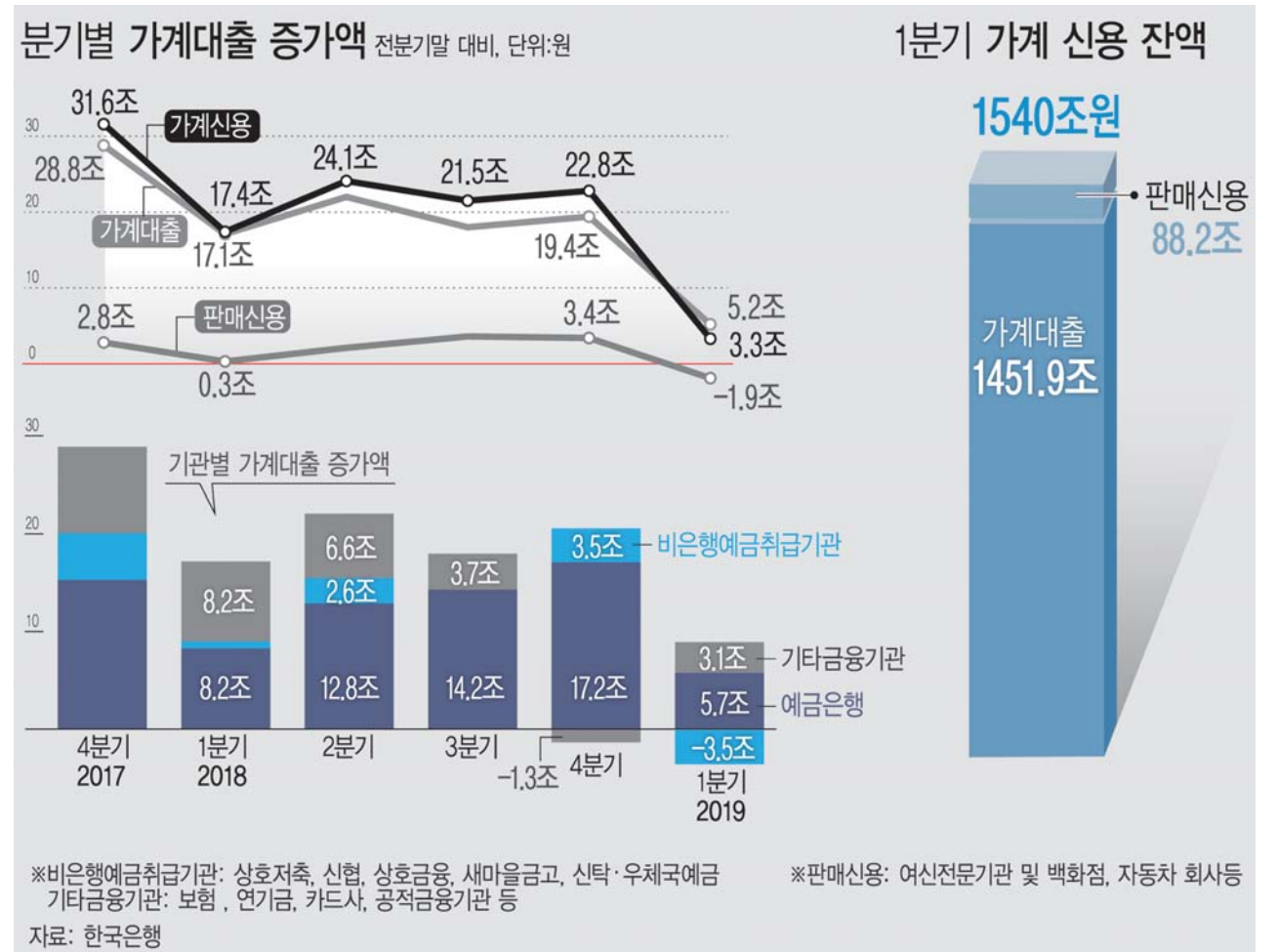
정부 규제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곳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3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올 1분기 3조5000억원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감소뿐이기도 하다.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은 큰 변동없이 거의 제자리 걸음했다.

보험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3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분기(-1조3000억원)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1년 전 증가액(8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 축소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분기(8조2000억원)보다 축소된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대출이 감소한 것은 2015년 1분기(-1조9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대비 7조원 늘어 1년 전 수준(4조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기존에 취급된 집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수요 등이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판매신용 잔액은 88조2000억원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계절적 요인에 일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영향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백화점과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의 증감액은 소폭의 마이너스였다. 가계빚 증가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빠른 민중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유정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1%p 정도 높은 상황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로도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입주물량 변화, 집담대출 상황, 비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등이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도 '구독경제' 시대

CJ 오쇼핑, 생리대 정기배송

TV홈쇼핑 업체도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고정 소비자를 확보하는 '록인(Lock-in) 효과'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국내 구독경제 시장 확대에 발맞춰 TV홈쇼핑업계 최초로 생리대 정기배송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올해 안에 CJ몰(CJmail)에 정기배송 전용 사이트를 오픈해 정기결제제를 자동화하고 정기배송 상품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객들의 구매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매 기간 일정 금액을 내면 정기적으로 물건을 배송받거나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다. 크게 ▲정기배송 ▲스트리밍 ▲렌탈

등으로 나뉜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구독경제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가장 성공한 구독경제 모델로 지난해 국내 이용자 수가 274% 증가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초 월 72만원에 현대차 3종을 바꿔 탈 수 있는 현대 셀렉션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 오쇼핑부문은 23일 오전 11시30분 TV홈쇼핑에서 에어퀵 생리대를 독점 판매하고 정기배송 서비스를 론칭한다. 단품 구매시 총 3개월분의 생리대 4종 세트(총 137개)를 7만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기배송 선택시 8% 할인(판매가 7만1500원)과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정기결제 2회차부터는 오쇼핑부문 콜센터 직원과 상담해 필요한 구성으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에어퀵 생리대는 주로 폴리에틸렌(PE) 필름을 사용하는 방수층에 신소재인 '나노 펄브레인'을 적용해 기존 생리대보다 통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오쇼핑부문은 국내 소비 트렌드가 구독경제로 변화하는 점에 착안해 에어퀵 생리대 제조사인 레몬에 정기배송 사업을 역으로 제안했다. 정기배송 사업에는 정기결제 시스템과 배송 인프라, CS(고객 서비스) 역량이 중요한 요소이며 오쇼핑부문의 경우 TV홈쇼핑업계에서 유일하게 정기결제 시스템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오피스텔로 육아간 '역전세'...세입자 주의보

광주광역시 43.3% 감소 195건...지방 감소폭 가장 커

이파트값 장기 하락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시장도 매매가 하락과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전셋값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전세 내지 강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 전국 상업용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1만745건으로 전년 같은 달(1만4206건) 대비 24.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4월 2690건에서 올해 2406건으로 10.6% 줄고 경기도는 같은기간 4951건에서 4553건으로 8.0% 감소했다. 인천시는 특히 2280건에서 1169건으로 48.7% 줄었다.

지방광역시중에서는 광주시가 전년(3442건) 대비 43.3% 감소한 195건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부산시도

전년(995건) 대비 5.9% 감소한 940건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시와 울산시는 각각 전년 205건과 141건 대비 27.3%, 71.6% 증가한 261건과 242건으로 집계됐다.

상가정보연구소 조현택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초과 공급, 매매가 및 임대료 하락 등의 요소로 수익률이 떨어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장상황에 오피스텔시장도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감정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4월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12% 떨어지며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서울의 경우도 지난해 12월(-0.01%)부터 하락을 시작해 4월(-0.09%)까

지 5개월 연속 내림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하락폭이 점차 커지면서 매매가가 전셋값을 하회하는 속칭 '강통전세'가 출현하기도 했다.

오피스텔 가격 하락세와 공급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역전세 현상도 당분간 추가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조 연구원은 “앞으로 월세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오피스텔 공급이 계속 증가한다면 대출이자 압박을 받는 투자자들이 늘어 금대물리 출현하기 시작하면 강통전세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지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갭투자인 경우가 많은 반면, 전세 목적으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사례도 있어 전월세보증금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방이나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